

기간제 교사 5명에게 역대 등친 고교 교사

정교사 채용 미끼 1억5천만원 챙겨 도주 학교측 초기 대응 미흡... 해외도피 못막아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기간제 교사들을 피어 수익원을 가로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직 교사가 4개 보합 혜택도 제대로 못 받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들을 정교사 전환이라는 '뿌리칠 수 없는' 미끼로 유혹, 역대 급품을 가로채 달아나다는 점에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을 파악했지만 경찰 신고가 늦게 이뤄지면서 학교측의 초기 대응도 미흡, 용의자인 교사의 해외 출국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거세다.

광주남부경찰은 광주 K교 기간제 교사 A씨 등 5명이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수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 D교 교사 김모(40)씨를 고소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김 교사가 근무했던 D고교 측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17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K씨에게 지난해 8월~12월 사이 광주 모 고교에 좋은 자리 있는데, 기간제 교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들 고소인들은 경찰 조사를 통해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까지 건넨 것으로 진술했다.

이들은 K 교사가 현직 교사인데

다, "사레비(수고비)로 500만원만 받겠다. 정교사가 되지 않으면 돈을 곧장 돌려주겠다"고 해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5명은 모두 기간제 교사들

로, 이들 중 3명은 K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라 의심을 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도 지인에게 K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B(32)씨는 "정교사는 모든 기간제 교사들의 '꿈'인데, 현직 교사가 정교사를 시켜주겠다는 데 어떻게 믿지 않겠냐"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현재 파악한 피해액은 1억5600만원이지만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측도 "해당 교사가 정교사 신분을 악용, 부당한 돈을 착복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 D고교는 피해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14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연 데 이어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한 뒤 1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 교사가 지난 2000년 9월부터 교사로 근무해왔으며 지난 9일 까지 정상 출근했다가 10일부터 무단 결근 중이며 17일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유연탄 저장고 폭삭

19일 여주시 낙포동 금호 티앤엘(T&L)의 발전용 유연탄 저장고인 60m 높이의 동형 사일로가 폭삭 추져앉아 철제 컨베이어 벨트가 종횡무림 구겨져 있다. 총 3기의 사일로를 갖춘 이 회사는 석탄 운반선으로부터 유연탄 등 원자재를 하역해 저장했다가 여수 신단 내 열병합발전소 등지로 공급한다.

/연합뉴스

경찰 주간근무 자원 금지령 광주 북부서장의 실험 눈길

치안인력 과다투입 판단 초과근무수당 낭비 방지

일선 경찰들은 불멘소리

경찰서장이 효율적인 치안행정을 이유로 직원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지구대·파출소 직원에 대한 주간근무 자원 금지령을 내렸다. 당장, 초과근무수당 감소 등 불이익이 불가피하지만 효율적인 치안 행정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학남 북부경찰서장은 지난 13일 역전·우산·일곡지구대와 석곡파출소 등 북부경찰 관할 8대 지구대·1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주간근무 자원을 금지한다'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다만, 야간근무 자원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금지령을 내린 데는 자신의 근무가 아닌데도, 주간에 근무를 자원, 초과 근무수당을 챙겨가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담

겨 있다. 지구대 한 팀당 10명 안팎인 평균 직원 수를 고려하면 자원 근무자 없이도 관할지역의 치안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대신, 주간근무 자원자를 치안 수요가 많은 야간 근무에 투입해 탄력적인 치안 수요에 대응하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을 수도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김 서장 구상이다.

북부경찰의 경우 19일 현재 주간근무 자원자에게 시간당 급여별로 7600원~9700원 가량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한 달 근무시간은 평균 160시간(20일 기준)으로, 한 달 22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감안하면 초과근무시간은 60시간에 달한다. 시간당 8900원인 경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53만4000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월급 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 경찰서로 확대해야 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지만 일선에서는 타 경찰서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불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서남대, 교협 회원 교수 57명 재임용 거부

학교 설립자의 900억원대 교비 횡령 사건으로 발령을 받은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 이사회가 교수협의회(교협) 회원 교수 57명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교협(회장 서정섭)은 "지난달 21일 학교 설립자에 굴종하기를 거부하는 교협 회원 교수 57명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통보해왔다"고 19일 밝혔다.

민주주의와 인권, 5·18 정신을 기약하고 체결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시의 애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온다.

사업 계획이 크게 바뀌면서 당초 준공 예정 시기인 4월은 커녕 올해안에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제 3 교역은 5·18 당시 희생된 5월 영령들이 안장된 장소다. 5월 영령들은 지난 1997년 국립 5·18 묘지가 조성되면서 국립 5·18 묘지로 이장됐다. 현재는 41명의 민족·민주

열사 시신이 안장돼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수 25명은 모두 조건부로 재임용되었다고 교협 측은 밝혔다. 교협은 이홍하(75) 서남대 설립자와 법인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학교 정상화가 늦어지고 교수와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교비 900여억원을 횡령해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서남대 설립자 이씨는 별도의 횡령사건으로 징역 6월이 추가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혼자 사는 외로움 달래려 애완견 훔친 할아버지



상나팔

○~강아지를 좋아하는 70대 남성이 운동시키러 아파트 복도에 둔 애완견을 훔쳐 달아났다.

○~광주광산경찰은 지난달 24일 광주시 광산구 상촌동 윤모(56)씨의

집 앞에 있던 마르티즈를 훔친 혐의로 이모(72)씨를 검거.

○~경찰조사결과 과거에도 강아지를 훔친 이씨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시 허술한 행정 ...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조성 차질

부지 선정 협의 약속 안 지켜

5월 관련단체 강력 반발

설계 용역비만 수천만원 낭비

4월 커녕 연내 준공도 불투명

광주시가 5·18 34주년을 앞두고 건립키로 했던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수천 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고스란히 낭비한 것도 모자라 애초 계획보다 축소되고 사

업 시기도 늦춰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 규모역(현 망월묘지공원 제3묘역)에 예산 15억5000만 원을 들여 기념관을 짓기로 하고 설계용역업체 선정에 위한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한 R건축사사무소와의 계약을 최근 해지했다.

R 건축사사무소는 당시 공모에서 제 3묘역 인근 매점·묘지사무소 일대 부지 392㎡에 유영복안소·유품전시실 등 추모공간과 야외음악당을

갖춘 기념관과 묘지관리사무소 등을 짓는 안을 제시, 우수작으로 선정돼 광주시로부터 설계용역비 83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우선 지급받았다.

광주시가 R건축사사무소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는 5월 단체의 반발 때문이다. 5월 관련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24호인 제3묘역 옆 매점·묘지관리소 부지에 기념관을 짓는 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광주시는 사업 대상 장소를 이전할 경우 별도 사업으로 판단,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용역업체인 S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업체에 지급된 세금이 고스란히 낭비된 셈으로, 5월 단체들은 광주시 '기념관 부지'를 정할 경우 5월 관련단체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졸속 행정 처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광주시는 애초 계획된 장소(매점·묘지관리소→제1주차장)를

변경하면서 기념관 규모도 392㎡에서 154㎡로 대폭 축소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주의와 인권, 5·18 정신을 기약하고 체결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시의 애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온다.

사업 계획이 크게 바뀌면서 당초 준공 예정 시기인 4월은 커녕 올해안에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제 3 묘역은 5·18 당시 희생된 5월 영령들이 안장된 장소다. 5월 영령들은 지난 1997년 국립 5·18 묘지가 조성되면서 국립 5·18 묘지로 이장됐다. 현재는 41명의 민족·민주

열사 시신이 안장돼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전대1분)

★전대상대2분상가원룸(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룠 21개(1층 상가 2칸, 룠 18개 4층 주택)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엘리베이터 완비, 최고위치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전대정문후문1분상가원룸★
신축 4층 룠 12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420만 매가 6억7천 (보 5천, 용 1억 2천)

★화정동5층상가원룸(신동아아파트정문)★
룠 27개, 1층 상가 80평(1층상가, 2층룸 9개, 3층룸 9개, 4층룸 9개)
월수익 1400만(1년 1억7천 수익) 매가 21억(보2억, 용 7억)

★수완지구상가(수익형, 확실보장)★
1층상가(17.5평) 대방5차 A후문 매가 3억 5천보2천 월130만, 용 2억
3층상가(85평) 모이엘가 A후문 매가 3억 5천보3천 월200만, 용 2억5천
3층상가(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 매가 2억 8천보3천 월150만, 용 1억5천

1층(18평) 대방5차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45평) 모이엘가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보3천 월150만, 분할가

★빌라형원룸매매(쌍촌동운천역2분)★
3천소액투자노후보장(연금처럼수익발생)
-원룸형매매 3800만 주택 11평 (보 200만, 월 30만, 용 1,000만)
-원룸형매매 4000만 주택 12평 (보 200만, 월 32만, 용 1,000만)
-원룸형매매 4800만 주택 14평 (보 300만, 월 40만, 용 1,500만)
-원룸 임대 즉시입주가 possible (원룸보 200만, 월30만/투룸보300만, 월 40만)

신한공인중개사 ☎010-6670-9800

여수 상업지 토지매매

여수시 중앙동 상업지 코너

기업은행 뒷 (옛 재중병원자리) 중심상업 쇼핑거리

154평 (매가 8억2천) 최고위치 신축 5층 이상 가능 (건폐율 90%, 용적률 800%이상)

웃메이커, 커피숍, 편의점 신축 가능

(주)대화이앤씨
010-6670-9800
062)952-5584

금당공인중개사

감정기이하

- 금매 광주은행보점 부근 대안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지하철 상층역 4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 병.의원, 사육,학원,자동차정비시설등 적합 7억 천
- 쌍촌동 2층 주거지 674㎡ (204) 다가구,다세대적합 3억 1500
- 동명동 5층건물 대지 318㎡(96) 건평 228평 상가와 주택있고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 2천선에 월 500천 수익 9억 6천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6) 4층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 2천
- 동구 대지 542㎡(164)건물 3968㎡(1200)18억 2천
- 동구 대지 923㎡(280)건물 7589㎡(2296)오양시설,병원,사육 등 적합 은행 26억 매도 41억
- 대안동 상가와 원룸 건물 대지 136㎡(41)건물 300㎡(90) 은행 5천 투룸 7개 매도 2억 2천
- 임동4차선도로 상업지 516㎡(156)은행 6억 5천 매도 7억

임대·투자

- 임대,쌍촌동용산그린아파트부근 투룸,쓰리룸 보증금 천만원에 월 30~40, 방크고 깨끗함
- 화순군 능주면 관리지역 1296㎡(392) 2천만원
- 해남군 문내면 전과 답 5557㎡(1681) 은행 6천 귀농생활에 최적합 매도는 은행인수하고 천만원
- 시골주택 담양군 봉산면 광주에서 10분거리 대지 665㎡(198)주택 162㎡(49)전원생활적합 9600만원
- 남평읍 오거리 대지 536㎡(162)은행 2천 매도 4천
- 신축쓰리룸건물 북구 우산동 대지 516㎡ 12세대 8억 9천
- 북동 상업지 992㎡(300) 오피스텔 생활주택등 다용도 8억
- 아파트 화정동 우성 2차 6층 70㎡ 통합 4천 매도 8천 6백
- 쌍촌동 용산그린아파트 4층 104㎡(32) 매도 1억 4천
- 쌍촌동 호대앞 명지맨션 7층 104㎡(32) 1억 4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판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성공을희망합니다

상가/건물

- ▶상무지구 신축건물 매 72억
- ▶화정동 교원공제부 1군부준점도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영프렌차이즈 입점)
- ▶계림동사무나건물-일부층 원룸 매 17.5억 (보8천,월8백,용9.5억 포함,직영수입 월천만)
- ▶월계동L.C타워 2층상가 960㎡ 매 17.5억, 분할가 (대형병원, 학원, 외식프렌차이즈 적합)

대지/전답

-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6억
- ▶서구 마록동 생산복지 답 5,400㎡ 매매 21억
- ▶북구 용두동 대지 2,050㎡ 매매 6.9억
- ▶북구 문흥동 교도소부근 집중지 6,300㎡ 매매 50억
- ▶북구 신안동 대지 3,100㎡ 매매 36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29,800㎡ 39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전 17,000㎡ 매매 5.2억

기타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용 5억)

축산관련시설 개발가능한 임야 구합니다(30,000㎡이상)

서구 치평동 라인동신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010-5536-0382 062) 373-0382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 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 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복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됨,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점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